

상생 무색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국비 지원금 싸움



지난 7일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시의회 앞에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련 광주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 "광주시 국토부에 190억원 반반씩 나눠달라 요청" 광주시 "지방비 투입 결정나 사업 참여 조율 요청했을 뿐"

나주시와 광주시가 나주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건립 국비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6일 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가 최근 행안부와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건립 국비지원금 190억원에 대한 분리 교부를 요청한 것이 상생과 협력이나"며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지난 6월 26일 행안 부와 국토부에 '센터 건립과 관련된 전남 도(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방식, 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등에 대한 조정 신청과 국비 190억원을 광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몇 차례 공문을 통해 복합혁신센터 추진과 사업비 부담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해오다가 타 당성조사 마무리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를 앞둔 시점에서 공문을 보낸 광주시의 행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 응이다.

또 나주시는 "당초 100억원이었던 국비 지원금의 추가확보를 위해 그간 전남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갖은 노력 을 다한 결과 90억원을 합계로 확보했는데 뒤늦게 이를 반으로 나누자는 것은 처러진

방상에 손가락을 얹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 조성을 비롯해 광주SRF 반입, 버스 노선 조정 문제 등 지자체 간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광주시가 중심으로 돌아가 상생과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한다면 복합 혁신센터 문제는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 된 어떠한 문제라도 협의하고 논의해갈 용 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나주시 주장에 광주시는 복합 혁신센터건립 추진에 있어 '양 시·도가 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 라'는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들어 "전남도와 나주시가 복합혁신센터 건립 절차를 일

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공동기금이 조성되어야 참여한다고 했으나 정적이 바뀌어 기금조성이 안되더라도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지방비를 추렴하기로 결정돼 그러한 사실을 국토부에 알린 것"이라며 "지금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광주시가 돈을 투입하기로 했으니 국토부에서 조율해달라는 취지였는데 나주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국비, 지방비 등 총 490억 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연면적 2만㎡)로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동아리방, 청년창업지원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들어설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 전지역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망 구축

5월부터 2억8400만원 투입 시민 모바일 이용 편의성 향상

나주시가 지역 모든 시내버스(15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사진> 나주시는 시민들의 모바일 이용 편의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올 상반기(5월) 70대에 이어, 하반기 시내버스 84대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망 구축을 마무리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은 나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주)KT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부터 총 사업비 2억8400만원이 투입됐다. 기존 관공서와 공공시설, 관광지 위주로 제공했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앞당기게 됐다.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폰에서 '설정-와이파이-연결' 후, 'PublicWiFi@Bus-Free' 식별자(SSID)를 확인-접속하면 된다.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PublicWiFi@Bus-Secure'에 접속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체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의 통신비 절감과 모바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 보급과 확산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금까지 20개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 36개소, 금성관, 영상테마파크 등 관광지 29개소, 다중이용시설(목사고을시장, 청소년수련관) 2개소, 버스정류장 48개소 등 총 11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관내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과거·현재·미래 담은 책자 발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의 전 과정과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혁신도시 백서 '희망의 새 천년을 꿈꾸는 빛가람' <사진>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백서에는 ▲혁신도시 이전, 금천·산포면 옛 마을 모습과 주민들의 삶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 ▲혁신도시 조성 배경과 추진과정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과 위기 ▲16개 이전공공기관 소재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시·지·2 성과 를 비롯한 미래 발전방향 등 그간의 변천사를 총 555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2005년 6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따른 1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토대로 전국 유일의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로 계획됐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2007년 11월 첫 삼을 뚫은 후, 2013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까지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금융기능군 등 총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백서를 통해 나주시민의 꿈, 담, 희망의 기록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라며, 책이 기록된 혁신도시 건설과정이 혁신도시 시·지·2를 비롯한 개발사업 추진에 자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다문화 11가구 47명, 그리운 고국으로 출발

나주시 신청자들이 환송식. 나주시는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 가족 신청자들이 환송식을 가졌다. <사진> 지난 6일 열린 환송식에서는 다문화 가족 11가구(47명)가 방문 가족 영상 상영과 가족소개 등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으로 '신청자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8가구 126명이 고국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3년 이상 거주

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에 다녀오지 못한 가족 또는 타의 모법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 만에 고향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왕곡면 주민 박모 씨는 "부모님과 형제들 만날 생각에 한숨을 못냈다"며 "시에서 뜻밖의 선물을 줘서 너무 행복하고 방학을 맞아 자녀들과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환송인사에서 "말게는 10여년에서 적게는 2년 넘게 고향을 가보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하



다"며 "너 나라에서 가족을 돌보고 낯선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없애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 백호문화관 어린이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나주시 백호문화관이 '2019 어린이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 백호문화관은 10일까지 3일간 '2019 어린이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방학 보내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백호 임제의 삶과 문화 감상 ▲백호 임제 가면꾸미기 ▲조선시대 초상화 알아보기 ▲백호 임제 상상 초상화 그리기 등으로 구성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백호문화관 관계자는 "추정 초상화로 남아있는 백호 임제 선생의 모습을 아이들의 상상을 통해 그려보는 색다른 체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백호문화관 누리집(baekhomoonhak.go.kr)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백호문화관(061-335-5008)에 문의 가능하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0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5 7 6 2 1 4 3 0 2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백담동 눈노안병원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